

北魏 太武帝의 폐불정책으로 본 북위불교의 특징

정 창 원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사학과 교수(교신저자)

남 희 경

심 박물관 학예사(주저자)

北魏의 太武帝는 華北統一을 달성한 武君이자 영민한 군주의 한 사람으로 평가된다. 그는 前代의 對佛정책을 계승함과 동시에 통일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편으로 濟河의 漢人名族 崔浩를 비롯하여 嵩山에서 수도한 道士 寇謙之를 조정에 등용하였다. 이들은 태무제의 정책수행에 반드시 필요하였던 인물이지는 하였지만, 최호는 항상 이상으로 생각하는 漢人에 의한 유교국가의 재건하려는데 목적이 있었고, 구겸지는 제권과의 결탁을 통해 도교를 국교의 지위로 확립코자 하였다. 때문에 이들의 조정 진출은 오직 태무제의 통일정책수행에 공헌한다는 충성심만은 아니었고, 왕권에 힘입어 정계에 진출한 후, 각자가 의도했던 목적을 달성코자 함에 있었다고도 말할 수 있다.

이들의 불교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면 최호의 정치적 이상은 어디까지나 유교주의에 입각하고 있었고 적극적인 배불론의 입장을 고수하였기 때문에 항상 태무제의 측근에서 척불론을 주장하였다. 반면 도사 구겸지는 도교의 확립에 노력하면서도 될 수 있는 한 당시 이미 교세가 확대되어 있는 불교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불타를 32天 가운데 하나로 인정하였으며, 극단적인 廢佛에 대해서는 반대하였다. 그러면서도 태무제를 도교군주로 만드는데 갖은 노력을 다하였다.

태무제의 불교 억압이나 폐불의 단행은 최호의 배불론적인 태도와 구겸지의 영향에 의한 道·佛의 충돌에 의한 것이라 함은 이미 통설인 듯하다. 그러나 태무제

의 불교 억압이나 폐불의 조치가 항상 그의 대외정벌이나 蓋吳의 亂과 관련해서 단행되었다는 점, 또한 태무제의 정치가 최후의 이상에 따라 실시되어 갔던 것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태무제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실시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최후의 대불태도와 태무제의 폐불에 대한 목적은 각기 달랐다고 말할 수 있다. 한편 구경지는 태무제의 극단적인 폐불을 반대하고 불교를 도교의 아래에 포섭, 내지는 인정하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446년에 단행된 폐불은 단지 道·佛의 충돌로 귀결시킬 수만은 없다.

상술한 이유로 태무제가 폐불을 단행한 목적은 불교가 그의 정책수행에 위배되어 邪僞의 종교라는 결단에 따라서 실현된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태무제의 정치적 목적에 불교가 위배되었기 때문에 단행된 것으로도 볼 수 있는 것이다.

북위의 시대적 요청에 따라 불교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를 계기로 불교는 북위사회 속에서 깊이 융화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였다. 이 과정에서 폐불이란 어려움을 겪게 되었으며 또한 생존을 위해 북위 풍토에 더 적합한 불교로 탈바꿈되어야만 했다. 이는 과거 역경에 의한 인도불교의 교의의 이해에만 초점이 맞추어 졌던 불교가 이 시대에는 커다란 시련을 겪은 불교인들의 각성에 의해 조금 더 중국화 된 불교로써 다시 말해 실천불교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된다.

태무제의 폐불은 무엇보다도 태무제의 국가 정책상의 불교 통제의 의도로 시행된 것이며, 그 결과 혼돈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불교의 興盛을 이룩해 낼 수 있었다. 또한 북위 불교가 국가 불교의 성격을 지닐 수 있었던 것은 강력한 전제군주에 의해 통치되는 국가의 테두리 안에서 불교가 존속하였던 남조불교와는 다른 독자적인 생존방식이었다.

北魏 太武帝의 폐불정책으로 본 북위불교의 특징

1. 들어가며
2. 기존연구의 검토
3. 북위의 화북통일과 태무제의 불교정책
4. 폐불정책으로 본 북위불교의 특징
5. 나오며

1. 들어가며

南北朝時代는 漢 이래 보급되어 온 유교중심사상에서 탈피하여 儒·佛·道의 우열이나 조화의 논의가 빈번하게 나타났던 시대였다. 특히 종교가 정치·경제·사회·문화에서 지극히 높은 비중을 차지했던 시기였다. 이 시기 외래종교인 불교가 전래되어 중국의 전통적인 관념과 큰 대립 없이 교세를 확장하고 안정된 지위를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胡族의 중원혼란이라고 하는 역사적 배경 가운데에서 형성된 것이다.

永嘉의 亂 이래 중원의 정치 사회적 혼란은 극도에 이르렀고 화북지방에서는 중국의 전통문화나 외래문화를 차별 없이 수용하려는 경향이 현저하였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화북통일과 백성의 안정이라고 하는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던 胡族君主는 沙門의 영험을 얻어 정치적 욕망을 충족하려 하였고, 정치·사회의 불안에 따른 백성들의 심적 변화는 내세의 존재와 안락을 믿는 강한 신앙심과 직결될 수 있었다.

胡族諸國의 난립을 청산하고 중원의 통일을 이룩하여 北朝時代를 열었던 北魏는 중국불교사에 있어서 미증유의 盛時를 이룩하였다.¹⁾ 이는 중국불교문화사에 있어 최대의 예술품이라고 평가받는 雲岡이나 龍門의 석굴 사원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북위의 불교는 처음부터 교단의 자유로운 활동에 의해서 그 융성의 기반을 확립했던 것은 아니었고, 항상 국가권력에 의한 정책수행의 필요성에 따라 보호되어 왔다. 때문에 이 시대의 불교는 군주의 의지에 따라 興廢가 좌우되는 君主敎從의 성격을 지니게 되었는데,²⁾ 이는 북위군주의 전제적·독재적인 성격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³⁾ 즉 불교에 대한 통제가 가해지고 廢佛이 단행되어 寺院과 僧尼의 존재를 허락하지 아니하였던 역사적 사실의 궁극적 목적은 국가적 차원에 연관 지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북위불교가 군주의 恣意에 따라 통일국가의 실현을 위한 왕권강화나 胡·漢融畝를 통한 왕권의 유지에 이용되었다면 북위불교의 성격을 구명하는 것은 곧 종교를 통한 북위통치책의 일면을 파악하는 한 방법이 될 것이다.

북위불교가 군주권과 결탁해서 포교의 편의를 제공받고 교세의 확대를 도모할 수 있었던 것은 太祖 道武帝에서 비롯되었다. 이러한 결합은 태조 개인의 돈독한 불교신앙심에서 의거한 것이라기보다는 그의 정치적 의지가 종교정책에 반영되어 나타났던 결과였다. 즉 華北統一의 대과업을 이룩하고자 했던 태조는 무

-
- 1) 아서 라이트 저·양필승 역, 『中國史와 佛敎』, 서울, 신서원, 1994, 83쪽.
 - 2) 박태원, 『中國佛敎研究』, 서울, 일조각, 1958, 326-327쪽 참조 : 불교가 중국에 들어와서 國家的 性格을 갖추게 된 까닭은 ① 中國의 민족성이 국가적, 현실적이라는 것과 ② 文化의 중심이 지배계급에 있다고 하는 역사적 사정에 유래한다고 지적하였다.
 - 3) 南北朝時代를 總稱해서 일반적으로 귀족사회로 지칭하고 있으나, 谷川道雄, 『拓拔國家の展開』, 東京, 石波書店, 1970, 199-219쪽에 의하면 五胡爭亂의 시기에 동반해서 北魏의 군주는 武斷專制的·獨裁的 性格이 강했다고 한다.

력을 이용하여 胡·漢雜居의 새로운 지역을 정복하고 이들을 북위의 신민으로 예속시키기 위해서는 초민족적인 불교를 통한 교화와 융합의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한편 무단전제적인 군주 지배 체제하에서는 강력한 권력의 원천이 군주에게 있음을 알게 된 僧徒는 군주의 불교이용이라는 기회를 포착하여 그 권력의 보호 아래 포교의 편의를 얻고자 하였다. 이러한 관계는 태조의 정책을 계승한 太宗 明元帝의 시대에도 계속되었고, 불교 측에서도 이와 같은 입장에는 변함이 없었다.

한 시대의 종교가 성쇠를 맞이하게 된 원인은 그 시대의 정치, 사회적 배경을 통해서 규명해 나갈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태무제의 화북통일을 전후한 폐불단행을 그 정치적 목적과 연관시켜 탐색해 보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당시의 정치, 사회적 특성과 관련된 북위불교의 일면을 엿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종교와 국가정책의 관련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2. 기존연구의 검토

북위시대 불교에 대한 연구는 국내에서도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문무왕은 북위불교가 부흥되면서 ‘국가불교화’ 되어가는 과정에 대해 분석⁴⁾한 바 있다. 박한제⁵⁾와 이성규⁶⁾는 북위의 통치

4) 문무왕, 『北魏時代 國家權力과 불교와의 관계』, 『불교연구』 제19집, 한국불교연구원, 2003.

5) 박한제, 『胡漢體制的 展開와 그 構造』, 『강좌중국사Ⅱ』, 서울, 지식산업사, 1995; 『魏晉南朝 貴族制의 展開와 그 性格』, 『강좌중국사Ⅱ』, 서울, 지식산업사, 1995; 『北魏 均田制 성립의 前提 - 征服君主의 자원확보책과 督課制』, 『동아문화』 제37호, 서울대학교 동아문화연구소, 1999; 『五胡 赫連하국 都城統萬城의 選址와 그 構造 - 胡族國家의 都城經營方式-』, 『東洋史學研究』 제69집, 동양사학회, 2000; 『胡族의 中原통치구조와 北魏 均田制』, 『魏晉隋唐史研究』 제8집, 위진수당사연구회, 2001; 『北魏의 對民政策과 均田制』, 『동아문화』 제39호, 서울대학교 동아문

체제와 성격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통해 남북조시대의 성격에 대한 기본적 연구토대를 제공하고 있으며, 張甫榮은 북위의 통치체제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접근을 시도⁷⁾한 바 있다. 최진열 또한 북위의 화북 지배체제와 종족정책 대한 일련의 연구 성과를⁸⁾ 통해 북위의 지배체제가 다양한 정책을 통해 안정·강화되어 가는 과정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이 외에도 북위불교에 대한 사상적 접근이 이루어진 연구로 張戒環⁹⁾은 북위불교의 역사적 성격과 아울러 그 사상적 특징을 地論學派의 성립과정을 통해 밝힌 바 있고, 荒牧典俊은 북위의 주요인물인 高允의 불교사상에 대해 고찰¹⁰⁾하였다.

남북조시기 폐불정책과 같은 특정주제와 관련된 연구 성과로는 向燕南의 「北魏太武帝滅佛原因考釋」¹¹⁾이 주목된다. 중국의 대표적 역사가인 陳寅恪 또한 「崔浩與寇謙之」¹²⁾에서 위진시대 폐불정책과 관련된 역사적 진행과정에 대해 서술한 바 있다. 塚

화연구소, 2001; 「胡漢體制論을 위한 辨明 - 金裕哲, 周偉訓, 川本芳昭 教授의 論評에 答함」, 『歷史學報』 177, 역사학회, 2003; 「魏晉隋唐時代 胡族君主의 中華帝王으로서의 變身過程과 그 論理 - 多民族國家形成의 一契機에 대한 探索」, 『중앙아시아연구』 제9집, 중앙아시아학회, 2004.

- 6) 이성규, 「北朝前期門閥貴族의 性格 : 清河의 崔浩와 그 一門을 中心으로」, 『東洋史學研究』 제11집, 동양사학회, 1977; 민현구·이성규 등편, 「中國帝國의 分列과 統一 - 後漢 解體 이후 隋唐 統一의 形成過程을 중심으로 -」, 『역사상의 分열과 재통일』(상), 서울, 일조각, 1992.
- 7) 張甫榮, 「북위초기 정권의 성격과 통치방식의 변화 : 이중적 통치지배 방식과 관련하여」, 『中國古代史研究』 第11輯, 중국고대사학회, 2004.
- 8) 최진열, 「北魏 華北支配와 그 性格」, 서울대학교 대학원 동양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2; 「北魏의 種族政策 - 부족해산의 실상과 對部族首領 정책을 중심으로」, 『魏晉隋唐研究』 10집, 위진수당사연구회, 2003.
- 9) 張戒環, 「북위불교의 사상적 특징 - 地論學派를 중심으로 -」, 『佛敎學報』 제35집,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1998.
- 10) 荒牧典俊, 「北魏의 忠臣 高允의 佛敎思想について」, 『東方學報』 72, 京都, 京都大學人文科學研究所, 2000.
- 11) 向燕南, 「北魏太武帝滅佛原因考釋」, 『三國兩晉隋唐史』, 北京, 中國人民大學書報資料社 復印報刊資料, 1984. 4.
- 12) 陳寅恪, 「崔浩與寇謙之」, 『陳寅恪史學論文選集』, 上海, 古籍出版社, 1992.

本善降은 「北周の廢佛に就いて」와 「北周の宗教廢棄政策の崩壞」라는 연구를 통해 北周의 폐불정책에 대한 전체적 흐름을 파악¹³⁾하였다. 최근의 연구로는 張箭의 연구를 주목할 만하다. 그는 「北周廢佛特點初探」¹⁴⁾과 「論北周武帝廢佛的作用和意義」¹⁵⁾에서 북주 폐불 정책이 피를 흘리지 않은 비교적 온건한 방법을 채택한 특징을 밝히고 있으며, 그 특징의 원인을 周武帝가 이미 漢化되었다는 점에서 찾고 있다. 韓府는 「“太武滅佛”新考」¹⁶⁾를 통해 태무제가 단행하였던 폐불의 원인을 이전의 종교설, 민족설, 문화설, 계급설, 군사설, 경제설 등에서 찾는 것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그 원인을 불교도가 태무제의 정권을 위협할 수 있었다는 정치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李玉芳은 「北魏太武帝滅佛原因淺析」의 연구¹⁷⁾를 통해 북위 태무제의 폐불정책이 佛敎와 儒·道 二敎사이의 모순과 충돌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樂貴川은 「北魏太武帝滅佛原因新論」¹⁸⁾을 통해 북위 태무제의 폐불정책을 拓跋部의 봉건화 진행과정에서 나타난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¹⁹⁾

-
- 13) 塚本善降, 「北周の廢佛に就いて」·「北周の廢佛に就いて」下, 『東方學報』第16・18冊, 京都大學人文科學研究所, 1948・1950; 塚本善降著·林保堯譯, 「北周の宗教廢棄政策の崩壞」, 『魏書釋老志研究』第二卷, 覺風出版社, 2007.
- 14) 張箭, 「北周廢佛特點初探」, 『佛學研究』12期, 北京市, 中國佛教文化研究所, 2003.
- 15) 張箭, 「論北周武帝廢佛的作用和意義」, 『西南民族學院學報(哲學社會科學版)』2002年 3期, 四川, 西南民族學院, 2002.
- 16) 韓府, 「“太武滅佛”新考」, 『佛學研究』12期, 北京市, 中國佛教文化研究所, 2003.
- 17) 李玉芳, 「北魏太武帝滅佛原因淺析」, 『宜賓學院學報』2004年 1期, 四川省宜賓市, 宜賓學院, 2004.
- 18) 樂貴川, 「北魏太武帝滅佛原因新論」, 『中國史研究』1997年 2期, 北京市, 中國社會科學院歷史研究所, 1997.
- 19) 이와 같이 북위 태무제의 漢化에 대한 연구로서는 曹道衡, 「魏太武帝和鮮卑拓跋氏的漢化」, 『齊魯學刊』2002年 1期, 山東省曲阜市, 山東曲阜師範大學, 2002를 참고할 만하다.

남북조시대의 정치적 문제와 불교를 연관 지은 국내의 대표적 연구자로는 李榮奭을 들 수 있다. 그는 「南朝 貴族佛敎에 대하여 -그 폐해(弊害)를 중심으로-」²⁰⁾; 「北魏의 華北統一에 따른 對佛政策 -太武帝의 廢佛以前을 중심으로-」²¹⁾; 「北魏太武帝의 華北統一과 對佛政策」²²⁾; 「北魏文成帝의 興佛政策에 관한 研究」²³⁾; 「北魏 獻文, 孝文帝時代의 불교정책 - 文明太后를 중심으로-」²⁴⁾; 「北魏末의 정치동향과 불교에 관한 연구」²⁵⁾; 「북조의 불교부흥 정책에 관한 연구 -재상 양견을 중심으로-」²⁶⁾ 등 남북조 불교와 관련된 일련의 연구 성과를 제시하고 있다. 그의 연구는 군주의 정책적 문제와 불교를 연관해서 언급한 부분들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 주안점은 대부분 종교적인 측면 특히 군주의 신앙심과 결부해서 고찰해 왔던 것이 특징이다.

위와 같은 기존의 연구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북위의 전시대 또는 한 시대에 걸쳐 특정의 문제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진척되어 왔던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기존의 연구서나 논문 가운데 군주의 정책적 문제와 불교를 연관해서 언급한 부분들이 없지는 않으나, 그 주안점은 대부분 종교적인 측면에서 군주의 신앙심과 결부해서 고찰해 왔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태무제에

-
- 20) 李榮奭, 「南朝 貴族佛敎에 대하여 -그 폐해를 중심으로-」, 『경북사학』 第3輯, 경북사학회, 1981.
- 21) 李榮奭, 「北魏의 華北統一에 따른 對佛政策 -太武帝의 廢佛以前을 중심으로-」, 『경북사학』 第5輯, 경북사학회, 1982.
- 22) 李榮奭, 「北魏太武帝의 華北統一과 對佛政策」, 『대구사학』 第24輯, 대구사학회, 1983.
- 23) 李榮奭, 「北魏文成帝의 興佛政策에 관한 研究」, 『馬山大學論文集』 第6卷 第2號, 마산대학, 1984.
- 24) 李榮奭, 「北魏 獻文, 孝文帝時代의 불교정책 - 文明太后를 중심으로-」, 『경북사학』 第15輯, 경북사학회, 1992.
- 25) 李榮奭·安洵亨, 「北魏末의 정치동향과 불교에 관한 연구 -河陰의 變을 중심으로-」, 『中國史研究』 第45輯, 중국사학회, 2006.
- 26) 李榮奭, 「북조의 불교부흥정책에 관한 연구 -재상 양견을 중심으로-」, 『慶南史學』 제3집, 경남사학회, 1986.

이르러 단행된 폐불의 중요한 원인은 한인명족 최호가 선비족의 胡族國家를 漢化함으로써 漢族중심의 문벌사회를 재건하려는 과정에서 행해진 것으로²⁷⁾ 즉, 문화적으로 이를 정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행해진 것이며, 또한 도사 구겸지가 북위조정에 천사도교를 확립하려는 가운데 일어난 ‘佛儒 二敎의 충돌이었다’라는 것이다.

태무제의 폐불원인을 분석한 초기연구로는 久保田量遠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그는 ①태무제가 불교를 존중했던 면도 일부 찾을 수 있으나, 그보다도 老莊을 朝夕으로 읽고 즐겼다는 점 ②태무제는 나이가 젊어서 武功에 전념했다는 것 ③道敎의 거장이었던 寇謙之를 신임했다는 것 ④태무제의 謀臣이었던 崔浩가 불교에 대해서 誹毀를 가했던 사실을 믿었던 것 ⑤長安의 寺院가운데 재산, 弓矢 및 寄藏物이 놀라울 정도로 많았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점 ⑥沙門이 寺院의 密室에서 盛히 淫行을 저질렀던 것을 발견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 가운데 ①에서 ④가 주된 원인이며, ⑤와 ⑥은 폐불을 촉진시켰던 동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여, 태무제가 노장을 신봉하고 구겸지를 신임했던 것이 폐불의 한 요인이 되었던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²⁸⁾ 이 점에 대해서 조금은 다른 시각으로 분석한 것은 장원규이다. 그는 최호가 폐불을 주장한 목적이 北方胡族의 아래에서 신음하는 漢民族을 대표해서 정복자를 문화적으로 정복하기 위해서 胡族이 신임하는 불교를 파괴하고 유교중심의 문화를 건설하는데 있었던 것이며, 태무제의 폐불 목적은 사원과 僧尼의 증가에 의한 불교교단의 부패와 이로 인하여 국가경제의 피폐함을 보고 교단의 人整理를 단행하려 했던 것이기 때문에 최호와 태무제의 목적이 달랐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²⁹⁾ 그

27) 道端良秀, 『中國佛敎史』, 京都, 法藏館, 1939.

28) 久保田量遠, 『中國儒道佛三敎史論』, 東京, 東方書院, 1939, 135-138쪽.

29) 장원규, 『中國佛敎史』 9, 서울, 고려원, 1983의 제4-2절 「北朝 魏·周」.

러나 이러한 주장에 대해 구체적인 논증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3. 북위의 화북통일과 태무제의 불교정책

五胡諸國에 의한 분립항쟁의 시대를 종결하고 華北 전역에 걸친 통일제국의 수립을 실현하려는 정책은 太祖 道武帝·太宗 明元帝 이래 계속 추진되어 왔다. 태무제의 집권기에 이르러 陝西의 夏(431년), 遼東의 北燕(436년)을 정벌하고, 계속해서 甘肅의 北涼을 멸함(439년)으로써 그 뜻은 달성되었다. 태무제의 화북통일은 그가 영민하고 과단성 있는 군주의 한 사람으로서 전대의 통일정책을 계승함에 기인한 것이라 볼 수 있다.³⁰⁾

태무제가 즉위할 당시 北魏가 처한 상황은 대외적으로는 蠕蠕·丁零·赫連 등과의 대립이 이어져 전쟁이 계속되고 있었으며,³¹⁾ 내부적으로는 胡·漢雜居의 상황 속에서 민심이 안정되지 못하고 반란 또한 계속되고 있었다. 혼란스러웠던 내외정세 가운데 균립한 태무제가 가장 중점을 두었던 정책은 우선 五胡의 禍亂을 평정하여 華北의 土人를 통일코자 함이었다. 그는 사방의 정복을 통해서 통일의 대업을 달성하려 했던 武臣의 한 사람이었으며, 실제로 그는 민력을 총동원하여 대외적 정벌에 전력을 경주하며 고심했다.

태무제는 그가 지향하는 바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편으로 국법과 군법의 중함을 강조함으로써 무단적 전제정치의 기반을 확립하고, 나아가 국초 이래 실시해 오던 사민책을 비롯한 胡·漢融合政策, 對佛政策들을 계승하고 추진해 갔다. 이

武의 廢佛」을 참고할 것.

30) 鄒元初, 『中國皇帝要錄』, 臺北, 百川書局, 民國81年, 156-161쪽.

31) 이공범, 『魏晉南北朝史』, 서울, 지식산업사, 2003, 156-158쪽.

과정에서 태무제는 통일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야 할 군부에 대해서 충절을 다할 것을 칙명하였다. 그 내용은 바로 고의로 군법을 위반하고 사사로이 군대를 떠나 이반하는 자는 죽음을 면할 수 없으며, 공이 있는 자를 포상하고 죄가 있는 자를 주멸함은 엄연히 국법에 의한 것이라고 선언한 것이다. 당시 국법이라고 함은 바로 군주의 명령으로, 그 목적은 바로 태무제의 전체권을 내외에 천명함으로써 통일의 대열에서 이탈함을 방지하고자 했던 것이다. 통일을 위한 그의 정치적 목적에 위배될 때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관용을 허락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그가 총애하는 인물은 그가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동반자적 역할을 담당하여야 하며, 拔1의 기준은 재능에 근거하였고 죄가 있는 자는 비록 친족이라 할지라도 벌을 면치 못한다 하였으니, 통일을 위한 그의 신념과 의지를 가히 짐작할 수 있다.

북위만의 특유한 현상은 아니지만 북위의 통일과정에서 실시한 대규모의 사민정책은 통일국가로 향하는 강렬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다. 사민정책은 북위의 대외적 정복 과정에서 예하의 異族으로부터 일어나는 집단적 반란에 대비하여 실시하였다. 적대세력 가운데 비교적 敵性이 강한 세력이 그 대상이 되었으며 부족전체를 옮긴 것은 아니었다.³²⁾

다음으로 중요한 정책은 胡·漢을 일괄하여 統御하는 일이었다. 이는 五胡諸國의 일반적 경향이었으나, 특히 북위에 있어서는 그 깊이를 한층 더하였다.³³⁾ 북위는 부족조직의 해산, 漢人관

32) 宇都宮清吉, 『中國古代中世史研究』, 東京, 創文社, 1977, 521-523쪽.

33) 宇都宮清吉, 위의 책, 436쪽에서 五胡諸國이 붕괴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漢族과 胡族의 대립과 모순에 있으며, 어느 왕조도 예외 없이 이 모순을 극복하지 못한 胡漢兩族의 背反과 부패의 결과였다고 한다. 그러나 北魏가 홀로 150년간의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胡漢融合의 역사적 난제를 교묘한 수법으로 해결했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6세기에 들어와 北魏가 멸망하게 된 것은 지나친 漢化에 대한 胡人の 불만과 漢族의 중하류층이 관직에 대한 사회적 차별에 대한 불만을 가진데 있다고 하여, 결국 北魏에서 隋에 이르는 왕조의 흥망을 胡漢融

료의 등용, 세계적 종교로서의 불교의 이용과 같은 정책의 구체적인 조치를 통해 胡·漢을 하나의 통치방식으로 통어하고자 하였다. 부락의 해체는 북위제국의 창건기이래 계속적으로 실시되어 왔다.³⁴⁾ 그러나 道武帝의 시대에 있어서는 부락 통솔권은 박탈하지 않으면서, 「分土定居」의 조치를 취함과 함께 八國制의 특별 행정 구역을 설치하여 농경을 장려하고 군수품을 징발하였다.³⁵⁾ 明元帝시대에 이르러 八國制는 六部制로 바뀌었고 태무제 이후 이러한 조치가 직접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로 볼 때, 태무제에 이르러 부락해체가 일단 완성된 것 같다.³⁶⁾

북위의 군주가 漢族을 파악·통솔하는 한편 그들을 북위의 정책에 협력하게 하기 위해서는 漢族의 사대부를 등용하고 그들의 행정술을 이용하는 방안을 채택하지 않을 수 없었다. 태무제는 431년 河北의 명사를 초빙해서 官에 임명하였다. 이러한 조치 즉, 漢族士大夫의 등용은 이민족왕조로서의 성격을 탈피해서 漢族의 전통과 그들 호족사회의 체제를 혼합하면서 중국적 보편국가로 변화한 것과 같은 상황으로 변화됨을 보여주는 것과 같다. 그러나 북위왕조는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軍國으로서 부족병을 주체로 하는 군대를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異民族王朝로서의 성질을 일정부분 강하게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漢族社會 전체를 통치자의 권력 아래 포섭하는 것이 가능하였으며, 漢族 또한 자신들의 자존심이 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合政策과 관련해서 설명하고 있다.

34) 이공범, 앞의 책, 120쪽.

35) 谷川道雄, 『晉漢隋唐史研究』,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1966, 211-212쪽. 拓拔部는 앞서 8部로 나뉘어 각 부에는 大人이 있었다. 拓拔部 天興初年(398)에 이르러 舊制의 8部에 大夫를 두었다. 이 때 8部라고 하는 것은 부락연맹을 조성하는 각각의 부락이었다.

36) 字都宮清吉, 앞의 책, 439-440쪽. 太武帝에 이르러서 拓拔部 이외의 전체 被征服遊牧民族의 부락은 해산되고 거기에 대신해서 훈공이 있는 君長家族은 귀족적, 호족적 지위에 정착되었으며, 군장 아래 있던 자들은 '城民'으로서 국가의 주권 아래 통괄되는 군대나 혹은 '編戶'로서 왕권아래 통괄되었다.

북위의 통일정책에 협력하는 방안을 선택하게 되었던 것이다. 물론 이러한 조치가 짧은 기간 안에 안이하게 진행되었던 것은 아니었다. 다만 태무제는 이러한 胡·漢融合政策을 성공적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그가 목표로 했던 화북의 통일을 달성하게 되었을 것이다.

태무제는 통일의 대과업을 달성한다는 목표아래 道武帝이래의 정책을 계승하여 추진해 나갔다. 胡·漢融合政策에 따른 정신적 측면의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민족을 초월한 세계 종교로서 강대한 영향력을 갖춘 불교를 국가권력에 귀속시켜 정치화하려고 시도했던 것이다. 화북통일을 위한 불교보호정책은 도무제이래 적극적으로 실시되었으며, 태무제도 그의 즉위기에 있어서는 전대의 불교보호정책을 계승하였다. 즉, 이미 帝權과 결탁해 北魏 領內에 교세를 확대했던 불교를 胡·漢融合의 정신적 수단으로 삼으려 했던 것이다.

태무제에 이르러 다수의 漢人이 북위조정에 등용된 가운데, 군국의 대사에 참여하여 통일에 크게 공헌한 대표적인 인물은 바로 清河의 名族 崔浩였다.³⁷⁾ 최호의 字는 白淵으로 白馬公 玄伯의 장자였다. 현백은 북위와 後燕의 전쟁 중에 북위의 포로가 되었으나, 태조 도무제에게 그 재능을 인정받았다. 黃門侍郎에 임명되어 제도의 정비에 노력하였으며,³⁸⁾ 398년 11월에는 吏部 尙書로서 정무를 총괄하는 중임을 맡았다.³⁹⁾ 다음 太宗 明元元

37) 魏晉이래 清河 崔氏의 系譜 및 그 활동에 관해서는 李成珪, 『北朝前期 門閥貴族의 性格 : 清河의 崔浩와 그 一門을 中心으로』, 『東洋史學研究』 제11집, 동양사학회, 1977, 3-32쪽에 상세히 논술되어 있으며, 崔浩의 이력 및 그의 관료생활방식에 관해서는 朴漢濟, 『中國中世胡漢體制研究』, 서울, 일조각, 1988, 109-120쪽을 참고할 것.

38) 『魏書』 卷24, 『崔玄伯傳』, 620쪽 : 太祖素聞其名, 遣騎追求, 執送於軍門, 引見與語, 悅之, 以爲黃門侍郎, 與張袞對總機要, 草創制度.

39) 『魏書』 卷2, 『太祖紀』 天興 元年 11月, 33쪽 : 十一月辛亥, 詔尙書吏部郎中鄧淵典官制, 立爵品, 定律呂, 協音樂; 儀曹郎中董謐 撰郊廟·社稷·朝覲·饗宴之儀 ; 三公郎中王德定律令, 申科禁; 太史令晁崇造渾儀, 考天象; 吏部尙書崔玄伯總而裁之.

에 이르러서는 벼슬이 白馬公에 나가갔으며, 명원제에게도 특별히 중히 여겨졌다. 그의 長子 최호 역시 태조 도무제시기 給事秘書, 著作郎에 기용되어 황제의 총애를 받았으며, 태종 명원제 때에는 博士祭酒, 武成子에 제수되어 황제에게 중국고전의 學을 전하였으며, 軍學의 대사에 참여하는 등 明元帝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인물이었다. 하지만 최호는 胡族出身의 群臣에 의해 정계에서 축출 당하였다. 그 후 태무제시기에도 신하들의 의견으로 인해 조정에 진출하지는 못하였으나, 태무제는 그의 재능을 인정하여 때때로 조정에 불러 정치를 의논하기도 하였다.

최호는 服食養性の 術, 즉 長生의 법을 말하는 道敎에 의지하여 안심을 얻으려 하였다. 그런데 최호가 도교의 수양을 통해서 나날을 보내고 있었던 것은 그의 가정이 도교와의 깊은 관계에 연유함이라고도 볼 수 있다. 최호의 어머니는 도교와 관계가 깊었던 范陽사람 盧諶⁴⁰⁾의 손녀로서 평소 그는 어머니로부터 깊은 감화를 받았던 것으로 생각된다.⁴¹⁾ 이러한 처지에 있던 최호가 다시 태무제의 조정에 진출하게 되었던 것은 嵩山의 道士로서 魏都에 왔던 寇謙之와의 결탁에 의해 가능했던 것이다.

寇謙之의 字는 輔眞으로 南雍州刺史 寇讚의 아우이며 스스로 後漢 名族 寇恂의 13대손이라 하였다.⁴²⁾ 그는 일찍이 仙道를 좋아해서 속세를 떠날 마음을 가지고 張魯의 術을 닦았으나 수년이 경과하여도 그 효력을 얻지 못하다가, 드디어 仙人 成公興을 스승으로 받들고 그에게 인도되어 華山의 庵에 들어갔다가 다시 嵩山에 들어가서 수행하였다.⁴³⁾ 이곳에서 약 7년간 수도한 후

40) 盧諶은 일찍이 老莊思想을 좋아하여 莊子에 注했던 인물이다. 『晉書』 卷44, 「盧欽 子浮 弟珽 珽子志 志子諶」, 1259쪽 : 諶字子諒, 清敏有理思, 好老莊, 善屬文.

41) 『魏書』 卷35, 「崔浩傳」, 827쪽 : 浩母盧氏, 諶孫也.

42) 『魏書』 卷114, 「釋老志」, 3049쪽 : 道士寇謙之, 字輔眞, 南雍州刺史讚之弟, 自云寇恂之十三世孫.

43) 『魏書』 卷114, 「釋老志」, 3049-3050쪽 : 少修張魯之術, 服食餌藥, 歷年無效. 幽誠上達, 有仙人成公興, 不知何許人, 至謙之從母家備質 … 興乃

성공홍이 죽고 나서 나름대로 사상적 체계를 수립하였다. 그의 사상은 종래의 도교를 淸整하며 三張(張僞陵法·張衡·張魯)의 僞法, 租米(五斗米), 錢稅 및 男女合氣之術과 같음을 버리고 오로지 禮度를 으뜸으로 삼고, 服食·閉練·服氣·導引·口訣의 방법도 중요시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反三張的 입장을 말한다.⁴⁴⁾

다음으로 불교에 대한 구겸지의 사상을 살펴보자. 불교는 西胡의 종교이지만, 佛陀도 32天 가운데 一宮인 延眞宮의 宮主로서 특별히 용맹한 고행파이기 때문에 그 제자는 모두 세속을 떠나 수도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는 불교를 도교의 일파로 인정하고 그 예하에 두려고 한 것이다. 하지만 이미 불교의 교세가 확대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배척하여 충돌을 가져오는 것은 시대에 적절치 못함을 깨닫고 불교를 인정하는 가운데 포교의 편의 얻고자 했던 태도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후 구겸지는 道書를 가지고 수도의 근거지인 嵩山을 떠나 평성으로 입성, 태무제에게 헌상하였다. 하지만 태무제는 그의 道書를 받고도 자신의 통일정책에 그가 공헌할 것인가에 대하여 확고한 심증이 서지 못했으며 또한 朝野에서도 반신반의의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 이러한 태무제와 조야의 태도에 대해서 구겸지는 자기의 이상이 좌절된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었을 것이며, 이때의 최호도 정계에서 물러나 服食養性의 術을 구하면서 다시 조정에 진출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따라서 양자는 조정 진출이라는 일치된 목적 아래 상호 결합할 수 있었던 것이다.

구겸지의 의도를 간파한 최호는 이때가 정계 복귀의 호기라고 판단하여 일단 구겸지를 師事하고 화북통일에 집중하는 태무제의 정책을 교묘히 이용하여 그를 추천하였다. 구겸지의 조정 진

令謙之潔齋三日，共入華山。令謙之居一石室，自出採藥，還與謙之食藥，不復飢。乃將謙之入嵩山。

44) 李成珪, 앞의 논문, 1977, 44-50쪽. 寇謙之의 思想은 舊洪系道敎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그 영향을 받았다고 보아도 좋다고 한다.

출을 흔쾌히 수락되었다. 태무제는 구검지가 軍國에 뛰어난 역량
 량을 갖춘 漢人名族 최호와 함께 접근함에 따라 자신의 국정운
 영에 관한 지도 원리를 그들로부터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소신이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구검지의 수도
 장이었던 嵩山은 玉帛牲牢로 祭祀되었을 뿐만 아니라, 도교는
 이제 북위군주로부터 공인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볼 때 구검지
 가 군주권과 결탁, 자신의 이상을 실현할 기회를 얻게 된 배후
 에는 복합적인 여러 요인이 작용된 것으로 보이지만, 무엇보다
 도 지모가 뛰어난 정략가 최호의 힘에 의한 것이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한편 구검지의 입장에서 자기를 태무제에게 추천해준 최호
 야말로 자타가 인정하는 漢人名族일 뿐만 아니라 장래의 활동을
 위해서는 고금의 정치에 밝은 그의 힘을 빌리지 않을 수 없었
 다. 때문에 구검지는 최호를 추천해서 조정에 참여케 하였으며,
 이렇게 해서 양자의 결합은 일단 성공하게 되었던 것이다.

구검지가 태무제의 조정에 진출하고자 했던 의도는 도교를 군
 주권과 결탁시켜서 국교로서의 지위를 얻고자 함에 있었던 것이
 며, 최호가 정계에 복귀하려고 했던 내심은 漢人政治의 이상을
 펴고자 함에 있었다.⁴⁵⁾ 그러나 태무제의 입장에서는 이들 두 사
 람의 近侍를 허락한 것은 도교의 신앙에 의한 것이 아니고, 한
 화정치의 실현을 위한 것도 아니며, 오직 화북통일을 위한 무군
 으로서의 이들의 능력을 이용하고자 함에 있었다. 즉 태무제가
 구검지를 임용한 목적은 어디까지나 그의 神異的인 힘을 國策上
 에도 이용하고 도교를 군주권의 통제하여 두고자 했던 것이다.
 이는 앞서 언급한 그의 불교보호정책과 동일한 측면으로 봐야할

45) 李成珪, 앞의 논문, 1977, 44-45쪽에 의하면 崔浩와 寇謙之의 제휴는
 정치적인 상호 이용가치 때문만은 아니고 양인의 정치적, 사상적 공통
 기만 위에서 성립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하여 寇謙之가 주장한 도교의
 성격과 崔浩의 사상적 입장을 對比시킴으로써 상호의 理想이 조화하
 게 된 원인을 상세히 규명하였다.

것이며 또한 무제·명원제의 시대에 군국의 大謀에 참여했던 최호의 능력을 파악하고 그의 정책수행 능력이 현재의 시점에서 무엇보다 필요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었다. 즉 태무제는 통일에 필요한 인물이라면 도교든 불교든 종교에 관계없이 이를 이용코자 하였던 것이다.

4. 廢佛政策으로 본 북위불교의 특징

태무제의 폐불사건은 그 직접적인 계기가 445년 杏城에서 일어난 蓋貳의 亂과 관련해서 446년 3월에 발표된 폐불의 조칙에 있다는 점으로 판단할 때, 그 궁극적 목적은 정책과 관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폐불이 단행되기 이전에 50세 이하의 사문에 대한 還俗의 조치나, 사문의 私養을 금지라는 불교에 대한 통제가 이미 가해진 바 있고, 또 구겸지나 최호의 영향으로 태무제 자신이 도교군주화 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⁴⁶⁾

최호의 불교에 대한 태도는 배불론적이다. 이는 그가 도교의 가정에서 태어났고 정계에서 물러나 복식양성의 술을 통해서 수양하였을 뿐만 아니라 구겸지와 결탁해서 다시 정계에 진출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도교신앙의 결과로 지적할 수 있다. 그러나 구겸지가 佛陀를 32天 가운데 延眞宮로 인정하고 최호의 극단적인 폐불을 반대하여 그와 다투었던 점으로 보아서 결코 신앙적인 측면으로만 해석해서는 만족할 수 없다. 그렇다면 그의 정치적 사상과 결부하지 않을 수 없다.

최호는 구겸지를 사사하고 도교를 신봉하였지만 정치가로서

46) 이 점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李榮奭, 「北魏의 華北統一에 따른 對佛政策 -太武帝의 廢佛以前을 중심으로-」, 『경북사학』 第5輯, 경북사학회, 1982와 「北魏太武帝의 華北統一과 對佛政策」, 『대구사학』 第24輯, 대구사학회, 1983을 참고할 것.

그의 의지는 중화의식에 젖어 있었다. 그가 이상으로 하는 고대 사회에는 불교 교단이 없었고 어디까지나 예교에 의한 질서의 확립과 문화사회의 건설이라는데 있었기 때문에 불교를 멸시하고 배척하게 됨은 당연한 사실이다. 유가적 이상 정치에 있어서 民이라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피치자계급으로서 생산과 세역을 담당하는 것이며, 특수한 사상에 입각해서 단결하는 것은 유가적 정치실현을 유일의 정의로 하는 정치적 견지에서 민중이 종교적 결합을 통해서 예교질서로부터 이탈함을 방지코자 하는데 중요한 목적이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불교배척의 근거도 불교의 이상이나 교의에 대한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비판보다는 화의의식에 입각한 胡神의 敎라고 비웃었던 것이다. 물론 최호의 배불론적 태도가 정치적 이상의 실현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현실적인 문제와 관련된 점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이를테면 사문의 특권에 따르는 재정상의 문제, 사문의 민중교회권 확대에 따른 문벌귀족과의 대립 등 제요인도 있었다. 이러한 최호의 배불론적 태도가 태무제의 대불정책에 미친 영향이 컸다는 것은 가히 짐작할 수 있다.

최호는 폐불이 단행될 때까지 항상 태무제의 측근에서 불교의 탄압을 주장하였고, 불교에 대한 제제의 조칙이나 폐불령에도 그가 직접 관계하였던 점을 미루어 보아 최호의 정치적 사상에 따른 대불태도가 태무제의 폐불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태무제때 단행된 폐불이 결국 최호의 의지에 의해서 좌우되었던 것은 아니며, 태무제 자신의 정책과 관련된 요인이 내재해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실은 태무제가 구경지의 도에 이르러 그 도술을 믿고 이를 실행하여 구경지의 등용이후 도교의 교세는 급속도로 확산됐다.

이제 폐불정책에 대한 詔勅과 폐불령을 근거로 태무제의 정책과 관련된 폐불문제를 살펴보자. 태무제가 불교의 통제에 대해서 최초의 조칙을 내린 것은 438년 “사문의 연령이 50세 이하인

자는 파면하였다.”⁴⁷⁾라는 것이다. 각지의 정복을 당면 과제로 하고 있던 북위에 있어서 동년 유연에 대한 북벌이나, 그 다음해인 439년의 북량정벌의 계획에 임해서 병력의 증강을 도모하고자 했던 것은 당연한 사실이다. 불교교단의 확대나 승려의 증가는 정복을 위한 병력 증강책에 위배되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그 통제의 필요성을 절감하였을 것이라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따라서 군정에 필요한 병력을 승려로부터 징발하고 50세 이하의 승려가 될 수 없다는 조칙을 발표하였을 것이다. 그 당시 승니의 정확한 수는 파악할 수 없으나 불교교단에는 국가가 필요로 하는 노동력을 가진 승려가 상당수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불교가 국가의 정책수행에 위배된다는 인상을 받아 통제의 대상이 되었고, 화북통일이 달성된 이후에는 그 통제가 더 엄중해졌다. 다음 단계로 발표된 444년의 조칙 내용은 사문의 무리들이 西戎의 虛誕를 빌려서 “壹齊政化 布淳德於天下”에 방해하고 있으니 마땅히 통제되어야 한다는 이유를 말하고 있다.⁴⁸⁾ 이는 위정자가 사문에 대한 영험을 느낄 때 고승에 대한 존경과 불교에 대한 보호를 실현하는 것이지만, 역으로 국가에 대한 공헌이 보이지 않을 때 국가권력에 의한 탄압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리고 통제의 방법은 私養의 사문, 師巫 및 金銀工巧之人은 모두 官曹에 보고하여 사사로이 가정에 숨기지 말아야 하며, 만약 15일이 지나도록 보고하지 않으면 사좌·사문은 身死하고 主人은 門誅한다는 것이었다.⁴⁹⁾ 그리고 이러한 조

47) 『資治通鑑』 卷123, 「宋紀」 5, 太祖文皇帝中之上, 386쪽, 元嘉十五年(438) 三月의 기사에 “魏主詔罷沙門五十以下者”라고 하고 여기에 胡三省이 註하기를 “以其強壯罷使爲民以從征役”이라 하여 沙門을 罷한 근본적인 원인을 征役に 종사시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였다.

48) 『魏書』 卷12, 「世祖紀」, 97쪽 : 戊申, 詔曰 : 愚民無識, 信惑妖邪, 私養師巫, 挾藏讖記·陰陽·圖緯·方伎之書 ; 又沙門之徒, 假西戎虛誕, 生致妖孽. 非所以壹齊政化, 布淳德於天下也.

49) 『魏書』 卷12, 「世祖紀」, 97쪽 : 自王公已下至於庶人, 有私養沙門·師巫及金銀工巧之人在其家者, 皆遣詣官曹, 不得容匿. 限今年二月十五日, 過

칙이 발표된 2일 후 文教規則을 발표하여 私立學校의 건립에 대한 통제를 엄격히 하고 있다.⁵⁰⁾ 그런데 이 조칙이 발표된 것은 시간상으로 근접해 있을 뿐만 아니라, 내용상으로 보더라도 壹齊政化와 整齊風俗이라고 하는 강력한 정치적 통제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이는 태무제의 화북통일 이후 중앙집권적 전제체제의 확립이라고 하는 정치적 문제와 깊이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북위는 부족제였지만 태조 도무제에 이르러 부족을 분산하여 分土定居케 함으로써 선비족의 구귀족 세력을 약화시켰다. 이후 태무제에 이르러서는 부락해산이 완성되고 북량평정 후에는 화북의 완전통일과 더불어 선비족의 군사력은 감소되고, 중원의 통치에 임하는 군주의 전제력은 보증되었다. 따라서 태무제는 그의 중앙집권적 전제체제를 확립코자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태무제의 정책에 따라 선비족의 구귀족이 북위왕실로부터 점차 소원해짐에 따라 그들의 불만과 더불어 통치계급 내부의 모순은 첨예화되어 갔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위의 명족으로 자부심을 갖고 있던 劉潔이 태무제의 통치에 대한 모반을 계획하였을 때 태무제는 이를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이며, 그러한 모반 이면에는 圖讖의 사상이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문 및 金銀工巧之人에 대한 억압을 가하고 私立學校의 건립을 통제함으로써 풍속을 整齊코자 하는 정치적 조치를 취한 것이다.

한편 사문과 더불어 師巫, 金銀工巧之人的 私養을 엄중히 경계하여 私坐 沙門은 身死하고, 主人은 門誅한다는 것은 각지의 豪族 및 貴族의 세력을 억압하여 왕권강화를 도모하고자 함에

期不出, 師巫·沙門身死, 主人門誅. 明相宣告, 威使聞知.

50) 『魏書』卷12, 「世祖紀」, 97쪽 : 庚戌, 詔曰 : 「自頃以來, 軍國多事, 未宣文教, 非所以整齊風俗, 示軌則於天下也. 今制自王公已下至於卿士, 其子息皆詣太學. 其百工伎巧·驕卒子息, 當習其父兄所業, 不聽私立學校. 違者師身死, 主人門誅.」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즉 金銀工巧之人的 私養禁止는 豪族의 무력기반을 없애자는 것이며, 사문의 금지는 불교세력과 결합된 豪族세력의 확대를 방지코자 함에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불교의 억압책은 마침내 개오의 난과 관련해서 북위 전역에 걸쳐 단행됨에 이르렀다.

蓋吳는 廬水の 胡族으로서 445년 杏城에서 반란을 일으키고,⁵¹⁾ 安定의 諸胡族들이 무리를 지어 이에 응함으로써 官軍으로는 쉽게 진압 할 수 없는 형세로 확대되어 갔다. 또한 개오는 자칭 天台王이라 하며 百官을 두는 데까지 이르렀다.⁵²⁾

화북을 통일하고 왕권의 강화와 문물제도의 정비에 노력하고 있을 즈음에 이러한 대규모의 반란은 조정의 신경을 날카롭게 하였고,⁵³⁾ 따라서 조정에서는 六州의 勇兵 二萬人을 특수 官軍으로 선발하여 개오의 토벌을 담당하게 하였다.

개오의 난이 불교와 관련된 중요한 사실 중 하나는 태무제가 개오의 난을 평정하기 위해서 長安의 한 사찰에 이르렀을 때 일어난 사실이다. 태무제의 從官이 寺內에서 무기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태무제에게 上奏하였다. 개오의 난을 평정하지 못하여 초조해 하고 있던 태무제에게는 개오와 通謀의 의심을 자아내기에 충분하였으며, 이것이 불교에 대한 통제와 억압을 실시해 오고 있던 그에게 폐불의 기회가 됨은 당연한 것이었다.⁵⁴⁾ 분노에 찼던 태무제가 사내의 檢索을 하명한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검색의 결과는 釀酒와 州郡의 牧守, 富人이 기증한 藏物 및 貴室의 부녀와 음란을 행했던 密室이 발견되었다.⁵⁵⁾ 이에 帝는 분

51) 『魏書』 卷4, 「世祖紀」, 98쪽 : 九月, 廬水胡蓋吳聚衆反於杏城.

52) 『魏書』 卷4, 「世祖紀」, 100쪽 : 蓋吳自號天台王, 署置百官.

53) 『魏書』 卷4, 「世祖紀」의 기록에 의하면, 태무제 始光 2년(425)이래 太平眞君 7년(446) 5월에 이르기까지 20여 년에 걸쳐 일어난 異族의 반란만 하더라도 15차례에 이른다.

54) 『魏書』 卷114, 「釋老志」, 3033-3034쪽 : 會蓋吳反杏城, 關中騷動, 帝乃西伐, 至於長安. 先是, 長安沙門種麥寺內, 御騎牧馬於麥中, 帝入觀馬. 沙門飲從官酒, 從官入其便室, 見大有弓矢矛盾, 出以奏聞.

노를 더하여 드디어 장안사문의 誅滅과 더불어 楚破佛像이라는 격한 폐불을 단행함에 이르렀다. 이러한 폐불령은 장안의 사원에 국한하지 않고 천하의 불사와 사문에 대하여 동일한 명령이 하달되었다.⁵⁶⁾ 불교는 건국 이래 사문의 靈驗이 화북의 통일정책에 이용되고 초민족적 종교로서 호·한 융합에도 공헌한 바가 지대하였지만, 군주권에 의한 탄압은 불가피한 것이었다. 즉 불교가 호국불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고 특정의 집단이나 무력과 결부되었다는 의심을 사게 되었을 때에는 국가권력에 의한 폐불을 피할 수 없었던 것이다. 북위의 태무제가 이와 같이 철저한 폐불을 감행했던 것은 당시 북위가 완전히 북중국을 통일하고 충실한 국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하나의 기본적인 요건으로 잠재해 있었다.

상술한 내용으로 볼 때, 태무제의 폐불 요인 가운데 유교정치를 이상으로 하는 배불론자 최호의 책동이나 구검지의 북위조정 진출로 인한 태무제의 도교화와 전혀 무관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북위 領內의 민족적 대립과 더불어 태무제의 통치에 대한 이민족의 위협적인 반란에 의거한 것이며, 직접적인 발단은 결국 장안의 사문이 개오의 난에 관련

55) 『魏書』卷114, 「釋老志」, 3034쪽 : 帝怒曰 : 「此非沙門所用, 當與蓋吳通謀, 規害人耳!」 命有司案誅一寺, 闕其財產, 大得釀酒具及州郡牧守富人所寄藏物, 蓋以萬計. 又爲屈室, 與貴室女私行淫亂; 이공범, 『魏晉南北朝史』, 서울, 지식산업사, 2003, 187-192쪽. ①寺院의 贖物은 富人이 일시적으로 위탁한 물건이거나 아니면 저당물로서 이는 사원이 농업에 종사하면서 세속 지주와 유사한 高利貸를 행했던 증거였고, 또한 사원 내에 釀酒가 있었다는 것도 스스로 술을 마시고 판매하는 상업 활동의 증거가 된다. ②釀酒와 더불어 密室의 淫亂行爲는 佛教의 계율을 파괴하는 것으로 사원이 세속 지주와 다를 바 없다고 하였다.

56) 『魏書』卷114, 「釋老志」, 3034쪽 : 帝既忿沙門非法, 浩時從行, 因進其說. 詔誅長安沙門, 焚破佛像, 敕留臺下四方令, 一依長安行事. 又詔曰 : 「彼沙門者, 假西戎虛誕, 妄生妖孽, 非所以一齊政化, 布淳德於天下也. 自王公已下, 有私養沙門者, 皆送官曹, 不得隱匿. 限今年二月十五日, 過期不出, 沙門身死, 容止者誅一門。」

되었을 것이라는 의구심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므로 태무제의 이민족 반란의 진압과정에서 나타났던 정책적 문제와 연관된 사건으로 규정지을 수 있을 것이다.

法果이래로 구축되어 온 불교는 폐불을 계기로 새롭게 정비되어 나갔다. 폐불의 종결 이후에 나타난 조칙에 살펴보면 군현의 승려의 숫자를 통제한다는 내용이나 사찰건립의 비용을 국가에서 마련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⁵⁷⁾ 이는 불교는 북위왕실의 후원 하에서 밖에 움직일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폐불이라는 상황을 겪으면서 북위의 승려들은 불교의 존망이 황제 1인의 의해서 정해질 수 있음을 절실하게 깨달았던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으로 인해 불교부흥 이후에도 불교는 조정의 통제 하에 놓일 수밖에 없었다. 먼저 전대의 沙門統 제도는 이때 道人統 제도로 정비된다. 즉 사문을 관장하는 종교대신이 황제의 지휘 아래 놓이게 된 것이다. 사찰의 건립도 국가가 관장하도록 함으로써 무문별한 사찰의 건립을 통한 통제권을 잃지 않으려 했으며, 더불어 사찰 건립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국가적 통제권의 한도 내에서 사찰을 통제하려 하였다. 또한 중앙에서 통제하는 형태의 사찰조직을 구성하였다. 또한 승려의 자격에 있어서도 나이를 구분하지는 않지만 양가출신의 출신성분이 확실한 자를 출가시키려한 점도 출가를 통해 신분탈출의 수단을 삼거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자를 통제하여 하였다.

이러한 승려숫자의 제한과 각 지역의 승려 배분은 불교의 지나친 확장을 경계하는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불교의 지나친 화개는 중앙통제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노동력의 유출문제도 심각해질 수 있으므로 불교에 대한 강한 통제를 행하고자

57) 『魏書』卷114, 「釋老志」, 3036쪽 : 今制諸州郡縣, 於衆居之所, 各聽建佛圖一區, 任其財用, 不制會限. 其好樂道法, 欲爲沙門, 不問長幼, 出於皇家, 性行素篤, 無諸嫌穢, 鄉里所明者, 聽其出家. 率大州五十, 小州四十人, 其郡遙遠臺者十人.

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와 같은 불교에 대한 북위의 통제는 건국초기부터 시작된 불교에 대한 통제의 새로운 적용이라 할 수 있다. 沙門統제도를 통해 불교를 통제하고 이러한 통제를 바탕으로 각지의 불교를 관장하려고 한 시도는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으며, 북불의 조칙을 통해서 그에 더해 승려 숫자를 통한 교단의 규모 및 승려의 질적 발전을 도모코자 한 것이다.

폐불 이후 국가 중앙에서는 僧官制를 새로이 확립하여 중앙통제기능을 활성화 시켰으며, 국가주도의 사원 건립과 출가승려의 숫자 통제를 통한 중앙집권적인 불교의 구축과 유지를 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여겨진다.⁵⁸⁾

폐불을 겪은 후 불교가 다시 성행하면서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급속도의 발전을 가져다주게 되는데, 그 방향은 학문적 연구보다는 현세적 이익과 미래의 행복을 얻으려는 실천불교적 특성을 지니게 된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폐불에 대한 태무제의 懺悔滅際, 追善供養과 선왕들의 깨달음을 위하여 문성제가 도성인 평성부근인 운강에 대규모 석굴을 조성하게 되는데 운강석굴이 바로 그것이다. 그 후 효문제도 이를 본받아 계속 작업을 이끌어 갔다. 이 석굴은 1500년 이전의 불교문화를 그대로 오늘날 전해두는 것으로 유명한 문화유산으로 당시 북위불교문화의 융성함을 말해준다. 역설적이지만 결과론적으로는 폐불이 훌륭한 불교문화유산을 남기는 계기가 된 것이다.

북위는 지리적 특성상 서역과의 교통로 확보로 인하여 사문왕래 뿐만 아니라 서역문물과의 접촉할 기회가 끊임없이 많았다. 따라서 서역승과 교류와 서역경전의 유입으로 독단적인 해석이란 불가능하였다. 이는 북위불교의 학문적 성격을 결정짓는 한 요소가 된다. 즉 중국인들은 현세 이익적 측면이 강한 민족이고

58) 원영만, 「北魏 僧官制 성립과 변천에 관한 연구 -法果와曇曜를 중심으로-」, 『한국불교학』 55집, 한국불교학회, 2009, 69-71쪽.

불안정한 정세와 폐불의 전말을 겪음으로써 학문적 발달방향이 실천적인 학문으로 발전하여 지론학과와 정토교가 흥기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5. 나오며

북위의 태무제는 영민한 군주의 한 사람으로서 오호의 화란을 평정하고 화북의 통일을 달성한 무군이었다. 그는 호·한 융합을 위한 전대의 대불정책을 계승하여 佛誕日에 즈음해서는 친히 散花·禮敬하는 호불정책을 실시하였다. 또한 통일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책의 하나로 한인 명족을 등용하였는데, 청하의 명족 최호는 태종 명원제로부터 태무제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태무제에게 近侍하면서 다재다능한 능력을 발휘하여 통일의 대업에 크게 공헌한 바 있다. 한편 嵩山에서 수도한 후 帝權과 결탁하여 교세를 확대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북위의 도읍에 왔던 도사 구겸지도 최호의 추천에 의해서 태무제의 조정에 진출하였다. 양인은 태무제의 정책수행에 없어서는 안 되는 인물이었으나 이들의 조정 진출은 오직 태무제의 통일정책수행에 공헌한다는 충성심만은 아니었고, 왕권에 힘입어 정계에 진출한 이후에는 각자가 의도했던바 목적을 달성코자 함에 있었던 것이다. 즉, 최호는 항상 자기가 이상으로 하는 주대의 五等爵制를 통해서 호족국가를 한화하려는데 목적이 있었고, 구겸지의 목적은 제권과의 결탁을 통해서 도교를 국교의 지위로 확립코자 하는데 있었다. 그런데 이들의 불교에 대한 태도를 보면, 최호는 도교적 가정에서 태어나 복식양성의 술을 통한 수양법을 즐겨했으며, 또 정치적 이상은 어디까지나 유교주의에 입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적극적인 배불론의 입장을 고수하고 불교를 극히 싫어했다. 때문에 항상 태무제의 측근에서 척불론을 주장하였다. 도사 구

겸지는 도교의 확립에 노력하면서도 될 수 있는 한 당시 이미 교세가 확대되어 있는 불교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불타를 32천 가운데 一宮圭로 인정하였으며, 극단적인 폐불에 대해서는 반대하였다. 그러면서도 태무제를 도교군주로 만드는데 갖은 노력을 다하였다. 이렇게 보아 태무제의 불교억압이나 폐불의 단행은 최호의 배불론적인 태도와 구겸지의 영향에 의한 도·불의 충돌에 의한 것이라 함은 이미 통설인 듯하다. 그러나 태무제의 불교억압이 폐불의 조치가 항상 그의 대외정벌이나 개오의 난과 관련해서 단행되었다는 점, 또한 태무제의 정치가 최호의 이상에 따라 실시되어 갔던 것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태무제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실시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최호의 대불태도와 태무제의 폐불에 대한 목적은 각기 달랐다고 하겠다.

한편 구겸지의 태무제의 극단적인 폐불을 반대하고 불교를 도교의 아래에 포섭 내지는 인정하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446년에 단행된 폐불은 결코 도·불의 충돌로만 귀결시켜 버릴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태무제가 폐불을 단행한 목적은 불교가 그의 정책수행에 위배되어 邪僞의 종교라는 결단에 따라서 실현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태무제의 정치적 목적에 불교가 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행된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에 기초해 볼 때, 북위불교가 어디까지나 왕주교종의 입장에서 국가에 봉사하지 않을 수 없었던 일면의 성격과 아울러 불교를 통한 북위의 정치·사회적 특성의 일면도 엿볼 수 있었다. 태무제의 폐불에 최호나 구겸지의 영향이 크게 작용했다는 점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나, 폐불의 주원인인 태무제 자신의 통일정책에 관련한 고찰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1. 基本史料

- 『魏書』, 景仁文化社編, 標點校勘本, 서울, 1976.
『晉書』, 景仁文化社編, 標點校勘本, 서울, 1977.
『資治通鑑』, 臺北, 宏業書局, 民國82年10月, 再版.

2. 연구서 및 논문

- 谷川道雄, 『晉漢隋唐史研究』,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1966.
_____, 『拓拔國家の展開』, 東京, 石波書店, 1970.
久保田量遠, 『中國儒道佛三教史論』, 東京, 東方書院, 1939.
樂貴川, 「北魏太武帝滅佛原因新論」, 『中國史研究』 1997年 2期, 北京市, 中國社會科學院歷史研究所, 1997.
李玉芳, 「北魏太武帝滅佛原因淺析」, 『宜賓學院學報』 2004年 1期, 四川省宜賓市, 宜賓學院, 2004.
문무왕, 「北魏時代 國家權力과 불교와의 관계」, 『불교연구』 제 19집, 한국불교연구원, 2003.
민현구 · 이성규 등편, 「中國帝國의 分列과 統一 - 後漢 解體 이후 隋唐 統一의 形成過程을 중심으로-」, 『역사상의 분열과 재통일』(상), 서울, 일조각, 1992.
박태원, 『中國佛教研究』, 서울, 일조각, 1958
박한제, 「北魏 均田制 성립의 前提 - 征服君主의 자원확보책과 督課制」, 『동아문화』 제37호, 서울대학교 동아문화연구소, 1999.
_____, 「北魏의 對民政策과 均田制」, 『동아문화』 제39호, 서울대학교 동아문화연구소, 2001.
_____, 「五胡 赫連하국 都城統萬城의 選趾와 그 構造 - 胡族 國家의 都城經營方式-」, 『東洋史學研究』 제69집, 동양사학회, 2000.

- 박한제, 「魏晉南朝 貴族制의 展開와 그 性格」, 『강좌중국사Ⅱ』, 서울, 지식산업사, 1995
- _____, 「魏晉隋唐時代 胡族君主의 中華帝王으로서의 變身過程과 그 論理 -多民族國家'形成의 一契機에 대한 探索」, 『중앙아시아연구』 제9집, 중앙아시아학회, 2004.
- _____, 「胡族의 中原통치구조와 北魏 均田制」, 『魏晉隋唐史研究』 제8집, 위진수당사연구회, 2001.
- _____, 「胡漢體制論을 위한 辨明 -金裕哲, 周偉洲, 川本芳昭 教授의 論評에 答함」, 『歷史學報』 177, 역사학회, 2003.
- _____, 「胡漢體制的 展開와 그 構造」, 『강좌중국사Ⅱ』, 서울, 지식산업사, 1995
- _____, 『中國中世胡漢體制研究』, 서울, 일조각, 1988.
- 아서 라이트 저·양필승 역, 『中國史와 佛敎』, 서울, 신서원, 1994.
- 원영만, 「北魏 僧官制 성립과 변천에 관한 연구 -法果와曇曜를 중심으로-」, 『한국불교학』 55집, 한국불교학회, 2009.
- 이공범, 『魏晉南北朝史』, 서울, 지식산업사, 2003.
- 李成珪, 「北朝前期門閥貴族의 性格 : 清河의 崔浩와 그 一門을 中心으로」, 『東洋史學研究』 제11집, 동양사학회, 1977.
- 李榮奭, 「南朝 貴族佛敎에 대하여 -그 弊害를 中心으로-」, 『경북사학』 第3輯, 경북사학회, 1981.
- _____, 「北魏 獻文, 孝文帝時代의 불교정책 -文明太后를 中心으로-」, 『경북사학』 第15輯, 경북사학회, 1992.
- _____, 「北魏文成帝의 興佛政策에 관한 研究」, 『馬山大學論文集』 第6卷 第2號, 마산대학, 1984.
- _____, 「北魏의 華北統一에 따른 對佛政策 -太武帝의 廢佛以前을 中心으로-」, 『경북사학』 第5輯, 경북사학회, 1982

- 李榮爽, 「北魏太武帝의 華北統一과 對佛政策」, 『대구사학』 第24輯, 대구사학회, 1983.
- _____, 「북주의 불교부흥정책에 관한 연구 -재상 양건을 중심으로-」, 『慶南史學』 제3집, 경남사학회, 1986.
- 李榮爽·安洵亨, 「北魏末의 정치동향과 불교에 관한 연구 -河陰의 變을 중심으로-」, 『中國史研究』 第45輯, 중국사학회, 2006.
- 字都宮清吉, 『中國古代中世史研究』, 東京, 創文社, 1977.
- 張戒環, 「북위불교의 사상적 특징 -地論學派를 중심으로-」, 『佛教學報』 제35집,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1998.
- 張甫榮, 「북위초기 정권의 성격과 통치방식의 변화 : 이중적 통치지배 방식과 관련하여」, 『中國古代史研究』 第11輯, 중국고대사학회, 2004.
- 장원규, 『中國佛教史』 9, 서울, 고려원, 1983.
- 張 箭, 「論北周武帝廢佛的作用和意義」, 『西南民族學院學報(哲學社會科學版)』 2002年 3期, 四川, 西南民族學院, 2002.
- _____, 「北周廢佛特點初探」, 『佛學研究』 12期, 北京市, 中國佛教文化研究所, 2003.
- 曹道衡, 「魏太武帝和鮮卑拓跋氏的漢化」, 『齊魯學刊』 2002年 1期, 山東省曲阜市, 山東曲阜師範大學, 2002.
- 陣寅恪, 「崔浩與寇謙之」, 『陣寅恪史學論文選集』, 上海, 古籍出版社, 1992.
- 塚本善隆, 「北周の廢佛に就いて」·「北周の廢佛に就いて」下, 『東方學報』第16·18冊, 京都大學人文科學研究所, 1948·1950.
- 塚本善隆 著·林保堯 譯, 「北周の宗教廢棄政策の崩壞」, 『魏書釋老志研究』 第二卷, 覺風出版社, 2007.
- 최진열, 「北魏의 種族政策 -부족해산의 실상과 '對部族首領' 정책을 중심으로」, 『魏晉隋唐研究』 10집, 위진수당사

연구회, 2003.

최진열, 『北魏 華北支配와 그 性格』, 서울대학교 대학원 동양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2.

鄒元初, 『中國皇帝要錄』,臺北,百川書局,民國81年.

韓 府, 「“太武滅佛”新考」, 『佛學研究』 12期, 北京市, 中國佛教文化研究所, 2003.

向燕南, 「北魏太武帝滅佛原因考釋」, 『三國兩晉隋唐史』, 北京, 中國人民大學書報資料社 復印報刊資料, 1984. 4.

荒牧典俊, 「北魏の忠臣 高允の佛教思想について」, 『東方學報』 72, 京都, 京都大學人文科學研究所, 2000.

〈ABSTRACT〉

A study on the keynote of Pei-Wei buddhism by
Tai-Wo-Ti's anti-buddhism of Pei-Wei dynasty

Jung, Chang-Won / Nam, Hee-Kyung

Tai-Wo-Ti of Pei-Wei Dynasty was the military monarch who achieved the unification of North China as one of the clever monarches. He succeeded to the policy against Buddhism from the former reign and conducted it, and also appointed K'ou Ch'ien-Chih, a taoist who practiced asceticism in ch'óng shān as well as Ts'ui Hao, a confucian minister of qīng hé for the monarchy government to achieve the goal of the unification. The both were indispensable to perform the policies but their intentions were not only from the loyalty to contribute for the unification policy accomplishment, they also wanted to achieve their initial intentions after entering into the politics in favor of the throne. That was to say, Ts'ui Hao aimed for the reconstruction of confucian nation by Chinese that he thought as ideal, and the goal of K'ou Ch'ien-Chih was to establish Taoism as the national religion by the collusion with the authority of the emperor.

However, to see their attitudes against Buddhism, since Ts'ui Hao's political ideology was strictly rooted in the Taoism, he actively cleaved the anti-buddhism, and in this reason, Tai-Wo-Ti's entourage always insisted on the anti-buddhism. The taoist, K'ou Ch'ien-Chih endeavored to establish the Taoism, but also he accepted Buddha as one of 32 T'ien and objected to the extreme anti-buddhist persecution to avoid the collision with Buddhism whose power was already spreaded in the region.

Thus, it is widely accepted that the performance of the anti-buddhism and the repression on the buddhism by Tai-Wo-Ti was due to the collision between Taosim and Buddhism under Ts'ui Hao's attitude which was anti-buddhism and K'ou Ch'ien-Chih's influences.

However,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 repression on the buddhism and the policies of anti-buddhism by Tai-Wo-Ti were always conducted related to the foreign invasion or the disturbance of gài wú, also that Tai-Wo-Ti's politics did not follow the Ts'ui Hao's ideology and was strictly conducted by his own wills, it could be explained as that Ts'ui Hao's attitude towards buddhism and the anti-buddhism by Tai-Wo-Ti had different aims.

Also, since K'ou Ch'ien-Chih kept his attitude to object to the extreme anti-buddhism and accept or win the Buddhism under Taoism, the anti-buddhism conducted in year 446 never should be concluded only as the collision of Buddhism and Taoism.

Therefore, the goal for the anti-buddhism by Tai-Wo-Ti can be explained with the reason that simply buddhism was against his policy performance, so he chose to conduct the anti-buddhism. With this stand point, the social phenomenon that the north china buddhism could not support the nation under the authority of emperor and, coordinately political and social characteristics of north china through buddhism as well as the controlling characteristic are observed.

Finally, even though anti-buddhism policy by Tai-Wo-Ti was deeply affected by Ts'ui Hao or K'ou Ch'ien-Chih, accepting this theory that is already widely spread, also the main reason for anti-buddhism should be considered as his own policies for the aim of unification.

Key words : Pei-Wei dynasty Tai-Wo-Ti, Pei-Wei buddhism, anti-buddhism, unification of North China, Taoism